

월요광장

신 발전모델로서의 사회적경제



이상면 광주대 교수

신자유주의가 낳은 한국경제의 최대 구조적 문제점은 양극화와 고용 없는 성장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그리고 빈부 간 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외형적인 경제성장 정책이 우선시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고용탄력성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경제가 성장하는데 일자리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신자유주의가 주장하는 낙수효과는 실제로 작동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양극화는 더욱 커져 상위 1%가 차지하는 부의 비중이 한국경제 전체의 11%를 차지하고 있다.

무한경쟁의 자유시장경제는 그동안 한국이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했지만 이젠 역할을 다한 것이다. 그리스신화의 이카루스처럼 밑받

으로 만든 날개로 감옥 탈출에는 성공했지만, 과욕을 부리고 너무 즐긴 나머지 태양 가까이 다가감으로써 밑받이 녹아 결국 국 파멸하게 된다. 이러한 경제성장 모델로는 구조적 문제점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더 이상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다. 양극화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새로운 한국 발전 모델이 필요하다.

정부와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 복지 전달 체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사회 유휴자원 간의 상호 결합성을 높여 내발적 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핵심적인 수단인 바로 사회적경제다. 특히 지역의 고용 자원을 최대한 끌어올려 서로 연결시킴으로써 양극화를 해소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민들에 의해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자생적으로 조성되어, 지역 발전을 이룬 대표적인 지역의 하나가 충남 홍성군 홍동면이다. 3500명 인구의 면 단위 작은 농촌에서 40여 개의 지역공동체 사업이 추진되면서 마을공화국을 이루고 있다. 우리밀 빵집, 떡 공장, 출판사, 요구르트 공장, 비누 공장, 원예조합, 공방 등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만든다.

심지어는 면 소재지의 호프집이 망하

자 주민들이 출자금을 모아 협동조합 술집을 개업하기도 했다. 풀무생활협동조합은 지역의 유기농산물을 도시 소비자에게 공급하면서 올해 연매출이 50억 원을 넘어서고 있다. 풀무신용협동조합은 현재 수백 억 원의 자산을 가진 지역 금융 기관이다.

이러한 활발한 지역공동체 사업이 인구 증가를 가져오고, 인구 증가에 따른 물류 및 활동의 증가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면서 다시 인구 유입으로 연결된다. 또 지역의 니즈를 주민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외부에서 유입된 돈이 지역에 남아 활용되는 선순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외부에서 대기업 및 대형투자를 유치하여 일자리를 만들려는 자본 중심의 발전 전략은 양극화, 실업에 허덕이는 지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다. 제주도는 해마다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이 관광객들이 쓰는 돈의 10%만이 지역에 남는다. 그래서 주민들은 행복보다는 분노를 느끼기도 한다. 중국기업들이 관광회사를 운영하고, 대기업들이 사업을 주도하면서 소득의 대부분은 외지로 유출되기 때문이다.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은 주민 고용 등 지역경제와 무관하게 성장을 추구한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례

를 보아 왔으면서도 아직도 외생적, 불균형 성장 방식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지역자원 활용, 지역주민 고용, 로컬푸드와 같은 착한 소비 등 지역공동체 이익에 기여하는 방향의 성장을 추구하기 때문에 바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 향상, 복지에 기여하게 된다. 현재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양적인 성장이다. 현재 생활협동조합과 정부 지원 하에서 확대되고 있는 사회적기업 외에는 사회적 경제라고 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홍성군 홍동면처럼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일단 양적으로 일정한 임계치를 넘어야 한다. 아직까지 시장경제가 주를 이루는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과 연대가 필수적인데, 우선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협력할 수 있는 조직들이 많이 설립되어야 한다. 창업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스웨덴 등 북유럽 식의 협동과 신뢰 기반 사회적 경제에서 한국의 신 발전모델을 찾고, 지역의 젊은이들이 기약 없는 대기업 취업만을 희구하기보다는 새로운 발전모델에 동참하여, 스스로 창업에 도전하고 승부를 걸어야 한다.

법조칼럼

형사당직변호사제도에 관하여



이상현 변호사

오늘은 광주지방변호사회 현 집행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운용하고자 하는 형사당직변호사에 제도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광주변호사회 소식지에 소개를 드린 바가 있으나 아직 일반 시민들께서는 잘 모르시는 관계로 이번 지면을 빌어 소상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일반 시민이 수사기관에 갑자기 긴급체포, 피의자 소환 등을 당했을 때 또는 기타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싶을 때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형사당직변호사로부터 현장에서의 법률 구조, 상담 및 기타 법적 도움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이미 운영이 되어 왔으나 홍보 부족, 당직 변호사 이용에 관한 일반인들의 인식 부족 및 변호사들의 관심 하락 등으로 거의 사문화(死文

化) 되었다가 올해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취임하신 노강규 변호사님의 적극적인 활용 의지로 인해 다시금 활발한 이용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의 기본적인 인권 수호 의무라는 명제(命題)에 정말로 부합하는 제도가 아닐까 합니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책임 위원회인 형사당직변호사 위원회가 올 초에 한 일은 위 당직변호사운영규정 중 일부 현실에 맞지 않거나 오래된 표현 문구 등을 손질해 개정한 것입니다. 또, 이용 매뉴얼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관내 경찰서, 파출소 내에 붙일 홍보 포스터, 스티커, 일반시민들을 위한 팸플릿을 기획·제작·배포(곧 시행)하는 일을 논의했습니다.

이용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새롭게 변모한 광주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 우측 상단을 보시면 해당일 당직 변호사님의 이름과 사진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 가능시간도 적시되어 있습니다. 평일에는 당직 변호사가 형사당직변호사 전용 휴대전화(010-2034-0420)를 가지고 있는데, 법률 구조를 원하는 시민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 휴대전화로 전화하시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간 이후에는 전용 전화에 발

신 번호가 남겨지면 다음날 당직 변호사가 연락을 드리게 됩니다. 또한, 휴일에는 당직상황실 직원(변협 직원)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고 사전 접수가 되면 해당 당직변호사에게 연락을 주어 구조 활동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윤 전화가 오면 당직변호사는 이를 접수한 뒤 연행, 긴급체포된 피의자가 있는 경찰서나 파출소에 출동하여 피조력인에게 구체적 법률 구조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영장이 청구될 소지가 있는 분에게는 영장실질심사전까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불구속 피의자에 대해서는 현장 출동 뒤에도 2회에 한하여 해당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 또는 전화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현장 1회 출동 시에는 전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나, 2회 출동 시부터는 1회당 10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만약 피의자가 당직 변호사를 사선으로 선임을 원할 경우 150만(부가세 포함)원에 선임 가능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당직변호 활동 중 사선으로 선임된 변호사님에게는 변호사회의 인지 첨부 의무도 면제되는 등 제도 활성화에 관하여 여러모로 좋은 방안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활용 정도가 다소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일반 시민들의 제도 자체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고 변호사들조차 이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불과 몇 건의 법률 구조만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홍보 포스터, 스티커, 팸플릿을 빠른 시일 내에 관내 경찰서, 파출소 등에 교부, 배포하여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제도를 인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에도 제도의 취지와 목적 등을 알려 최대한의 협조를 구하도록 하며, 아직 본 제도 활용에 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장흥과 목포, 순천, 해남 지회 등에도 협조를 구하여 인력 풀을 구성하는 것도 중요한 해결책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지방변호사회에서는 올해 형사당직변호사 뿐만 아니라 소액 사건지원변호사 등 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제도를 고안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모쪼록 변호사들이 일반 시민들에게 더 깊이 다가가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드리려는 노력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보여주시고 더 나아가 많은 이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고

소르본느 그리고 광주



김응식 광주U대회조직위 부위원장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가 광주를 긴장시키고 있다. 광주는 아직까지 청정지역으로 보호되고 있고 대회기간에도 그럴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조직위원회와 전문의료인들이 조율하면서도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고 큰 행사에 이 정도의 장애는 견딜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답대하면서도 철저히 방어하고 있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소르본느 대학에서 채워진 성화는 무등산에서 채워진 성화와 합화한 뒤 메르스를 불태우며 전국 순회 봉송 중이다. 경기장과 선수촌은 열을 낚지 후면 들어올 임원과 선수맛이에 한창이다. 준비위원들의 등에는 땀이 흥건하다. 오래된 아파트를 허물고 쾌적하고 안전한 현대화된 시설물로 탈바꿈시킨 선수촌, 그리고 잘 수리해서 새로 단장한 경기장은 세계 곳곳에서 찾아온 임원과 선수들에게 많은 박수를 받을 만큼 훌륭하다.

프랑스 파리는 근대스포츠의 요람이다. 1896년 쿠베르탕은 근대 올림픽을 출범시켰고 올림픽이 계속되면서 스포츠는 온 인류가 사랑하는 스포츠 문화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올림픽과 월드컵 그리고 프로스포츠 문화는 근대 자본주의와 맞물려 경쟁을 가속시켰고, 이후 스

포츠 경기장은 폭력, 도박, 속임수, 약물남용 등으로 얼룩졌다. 심지어는 IOC와 FIFA까지도 예외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적 스포츠의 변질을 예견하고 있었던 파리 스포츠 지도자들이 이를 제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시 창안한 스포츠 모임이 바로 유니버시아드대회이다. 아마추어리즘이 잘 지켜지고, 운동과 스포츠를 병행하면서 건강한 신체와 정신 그리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선수들이 참여하며, 올림픽보다 유연하고 경비를 많이 들이지 않는 대회를 하자는 것이다.

현재 세계 여러 나라 지도자(미국 오바마 대통령, 전 미국 농구U대회 대표선수)들 중 U대회 국가대표선수 출신 등은 허다하다.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는 이와

같은 U대회의 철학과 신념을 바탕으로 우리 고장이 갖고 있는 멋과 맛 그리고 따뜻한 시민정신을 잘 녹이고 있다.

500년을 한결같이 올곧게 민족정신을 지켜온 한민족은 전세계가 격정한 88올림픽과 2002월드컵대회를 온 인류에게 충격을 담은 환호로 이끌었고 그를 바탕으로 근세 30년을 역동적으로 발돋움했다.

우리 나라는 지금 매우 고단한 정치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럴 때일수록 남북한은 비정치적 분야만이라도 조건없이 협력하여 남북한 국민 모두가 건강에서 해방될 수는 없을까?

이제 세계스포츠사에 또 한 번의 모범답안을 준비한 광주시와 조직위원회는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환영 그리고 적극적 참여를 당부한다.

社說

6·15선언 15주년 공동행사는 무산됐지만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이 열사안했던 장면은 우리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있다. 텔레비전을 통해 볼 수 있었던 그 감격적인 포옹 장면을 어찌 잊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당시 분단 반세기 만에 남북 정상이 처음 만나 발표된 6·15 선언은 대립과 갈등의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로 이끌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15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상황은 크게 달라지고 남북 경색은 오히려 더욱 심화되고 말았다.

특히 남북 민간단체가 추진하던 6·15 공동선언 발표 15주년 및 광복절 70주년 공동행사가 무산돼 실망을 안겨줬다. 순수 사회문화 행사로 치러져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과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북한의 입장이 맞선 것이다. 아무래도 공동 개최 무산은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에 기인한 측면이 큰 데다 북한도 별로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엇그제 광산에서는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15주년을 기념하는 통일쌀 보내기 행사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기념식을 마친 뒤 농민들과 함께 들녘에서 통일쌀 보내기 행사를 갖고 남북화해와 협력 정신을 되새겼다. 하지만 각종 민간 교류 사업들이 모두 끊긴 상태에서 6·15 공동선언 역시 지금은 많이 빛이 바랜 상황이다. 다음 달 열리는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또한 북한의 참가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흥행에 빨간 불이 켜졌다.

이제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6·15정신을 존중하면서도 이를 발전적으로 계승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남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제조건은 정권에 관계없이 추진할 수 있는 대북 정책의 원칙에 대한 국내 합의다. 정부와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이고 보다 과감한 대북 접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메르스 여파로 농촌 일손 부족 심각하다니

농번기를 맞은 전남 지역 농촌의 인력난이 극심하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평소에도 일손 구하기가 어려운데 메르스 사태까지 겹쳐 심각한 상황이라고 한다. 더욱이 지금 시기는 양파·마늘 수확부터 보리베기, 모내기과 사과·배·포도 열매수기 등 여러 농작업이 겹치는 중요한 시기여서 자칫 울농사에 큰 차질을 빚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최근 전남에서 처음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보성 지역의 경우 지원 인력이 턱 끊겨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지난 10일 보성에 거주하는 환자의 메르스 확진 판정 이후 이 지역 일손 기피 현상이 극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보성 이외의 다른 지역이라 해서 상황이 나은 것은 아니다. 메르스 여파로 인한 불안 심리가 진정되지 않으면서 봉사단체들의 지원 활동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전남 22개 시·군의 최근 한 달간 ‘농촌 일손 돕기’ 사업을 보면

참여자들(4254명)의 89.3%(3803명)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농협 직원들로 나타났다. 민간 지원 인력을 찾아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당이 전정부치로 올라야고 수확확인 무안 지역의 경우 평소 6~8만 원이었던 포장·저장 인력의 경우 최근 12~15만 원까지 치솟았다. 더 큰 문제는 돈을 더 준대도 일손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농사는 때가 가장 중요하다. 시기를 놓치면 한 해의 노력이 헛수고가 된다. 전남도 등 농정당국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당장 지역 의료기관, 보건소 등과 연계해 철저한 위생 및 방역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안심하고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설 수 있도록 환경조성에 힘써야 한다는 말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장비들을 일손 돕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군 당국에 협조를 구하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Advertisement for '無等鼓' (Mueunggu) featuring a drum icon and text about a book '세뇌' (Seunoe) by Kim Eung-sik. The text describes the book as a guide to understanding the human mind and society, and includes a quote from the author about the importance of mental health and the role of education.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Kwangju Ilbo (光州日報) featuring the newspaper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It lists the address, phone numbers, and website, and includes a note about the newspaper's commitment to providing quality news and services.